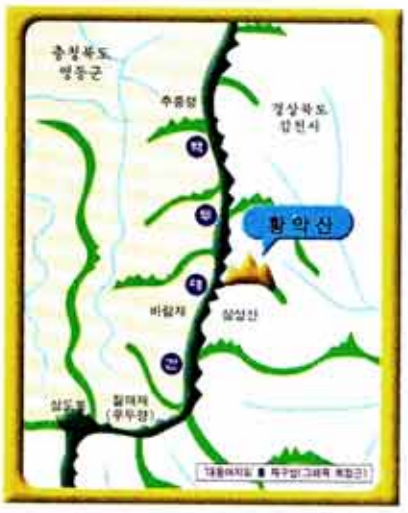
눈은 하늘로 봄은 고양이 걸음으로

백두대간 속으로 〈11〉

삼도봉→황악산

임춘 경칩 다 지나서, 마음 속엔 벌써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데, 산봉우리엔 아직 눈이 남아 있다. 아니, '남아 있다'는 말은 온당치 못한 표현이다. 내려올 때보다 더 조용히, 하늘 저 깊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봄은 고양이 걸음으로 온다.

이렇듯 자연의 순환은 은밀하고도 섬세하다. 따라서, 이 즈음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계절의 교대라는 엄숙한 자연의 제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봄 산행은 야단스럽지 않아야 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만치 오던 봄이 화들짝 놀라 달아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삼도봉을 지나 삼마골재에 이르러 물한계곡을 부려놓은 백두대간은 다시 허리를 들어올려 곰길인 양 아득한 등성이를 첩첩이 이어간다. 이곳에서부터는 전라도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추풍령을 지나 국수봉에 이르기까지는 좌우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끼고 간다.

삼마골재에서 질매재까지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이어지지만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밀목재에 이르기 전에는 마치 오던 길을 되짚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어 돌아야 하고, 화주봉(1,207m)앞 암봉(1,175m)을 지나서는 깎아지른 듯한 암릉을 조심조심 내려서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봉우리 다 조망이 탁월하므로 오르내린 수고의 몇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화주봉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질매재 쪽 등성이뿐 아니라 뒤로 민주지산의 연봉을 비롯하여 덕유산, 덕유삼봉산, 초점산, 대덕산에 이르기까지 오던 길을 찬찬히 되짚어보게 한다.

산행의 즐거움 중 으뜸으로 꼽을 만한 것이 바로 조망(眺望)이다. 대통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일망무제로 펼쳐지는가 하면,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정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권형한 인간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는 더없이 훌륭한 스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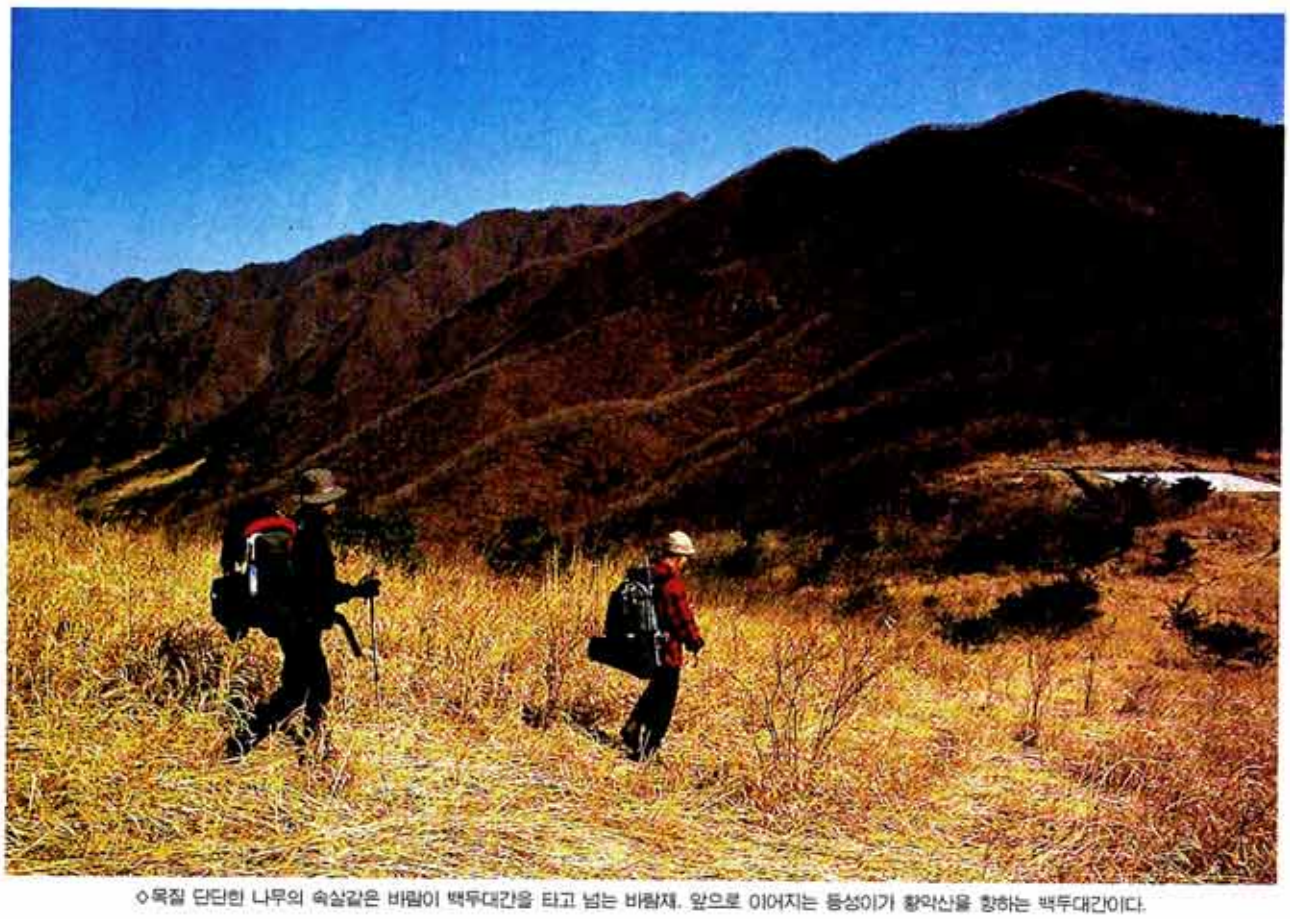
◇418년(신라 눌지왕2) 아도(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직지사 대웅전. 대웅전 앞의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물 제606호다.

특히 백두대간 위에서의 조망은 흡로 우뚝선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현격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등줄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가지치며 물을 가르고 땅을 나누어 이 민족을 거두어 왔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 서야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유기적이고도 입체적인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화주봉에서부터 질매재까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질매재(730m)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과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을 넘나드는 고갯마루인데, 우두령(牛頭嶺)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이 고개의 생김새가 '질매'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질매'란 소 등에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 때 안장처럼 얹는 물건인 '길마'의 이 고장 사투리이다. 이런 고개 이름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자화하면서 생겨난 이름인 '우두령'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조차 별개의 곳인 양 표기하는 것은 빨리 바로잡혀야 할 일로 보인다.

질매재에서 동쪽으로 휘돌다가 다시 북쪽으로 허리를 곧추세우는 오름길은 저물녘에도 햇살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권안하다. 방긋 웃는 봄꽃과 도란거리며 걸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이르다. 계속 오르면 바람재로 내려서기 전에 봉싯 솟아 사방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삼성산(985.6m)에 이른다.

말만 들어도 한 무리의 바람이 거침없이 안겨들 것 같은 바람재(810m)는 말 그대로 바람의 길이다. 이 곳의 바람은 도시의 바람과는 밀도가 다르다. 수백년 켜를 다져온 묵질 단단한 나무의 속살 같다고 할까. 아무튼 고개의 주인이 바람인 만큼 사람들은 거저 온몸을 내맡겨 속진이나 털어낼 일이다.



◇목질 단단한 나무의 속살같은 바람이 백두대간을 타고 넘는 바람재. 앞으로 이어지는 등성이가 황악산을 향하는 백두대간이다.

화주봉-일망무제로 탁트인 경관 '일품'
바람재-밀도 높은 바람에 속진을 털고…

이 고갯마루에는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에서 올라오는 임도가 닦여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넓따란 헬기장과 미군들이 주둔하다가 버리고 간 벙커, 김천시에서 세운 무선 통신 중폭 안테나까지 세워져 있어 황량함을 더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가끔씩 바람재에는 전국의 아마추어 무선사(HAM)들이 무전기의 성능 시험을 하기도 하고 미국이 개입한 국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미군이 나타난다고 하니, 이름값만큼은 톡톡히 하는 셈이다. 바람재에서 황악산 정상인 비로봉(1,111m)까지는 다투어 오르지 않아도 한 시간 남짓이면 된다. 형제봉(1,020m)에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서면 바로 그 곳이다. 동쪽으로 산자락이 다한 곳에 418년(신라 눌지왕 2년)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개 들어 먼 눈길을 주면, 톡 트인 시야로 김천 시가지는 물론 추풍령을 향해 내달리는 경부고속도로도 들어오고, 금오산과 가야산도 가늠이 된다.

황악산(黃嶽山)의 이름 내력은 딱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만분의 1 지도에는 황악산(黃嶽山)이라고 적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 택리지 같은 문헌에는 황악산이라고 적혀 있으니 황악산은 분명 오기인 듯하나, 산의 모양새로 봐서는 '악(嶽)'자에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산 자체가 흙산인데다 봉우리 또한 두리뭉실하니 말이다. 그러나 속리산과 이 산 사이의 형세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리뻗은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지나서 황악산에 이를 때까지는 이렇다 할 산을 솟구쳐올리지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속리산과 황악산 사이에는 1천 미터가 넘는 산이 하나도 없다. 물론 높다고 두조건 명산인 것은 아니지만, 명산이 갖출 요건들인 수목, 계곡, 물, 형세 따위에서 싹 내세울 만한 산이 없던 차에, 자태도 우람하고 그윽한 계곡도 품에 안은 황악산을 만나고 보니 주지없이 '악'자를 붙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다.

황악산 정상에서부터는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속도에 적당히 제동을 걸기만 하면 직지사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닿는다. 내쳐 올라서면 여시골산으로 향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면 직지사다. 갈길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진짜로 여시가 나타나 아홉 꼬리로 홀리더라도, 이곳에서 직지사를 둘러보고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차례에는 직지사를 찬찬히 둘러볼까 한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인물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6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 · 노랑 · 연분홍

팔모주름등 (핑크)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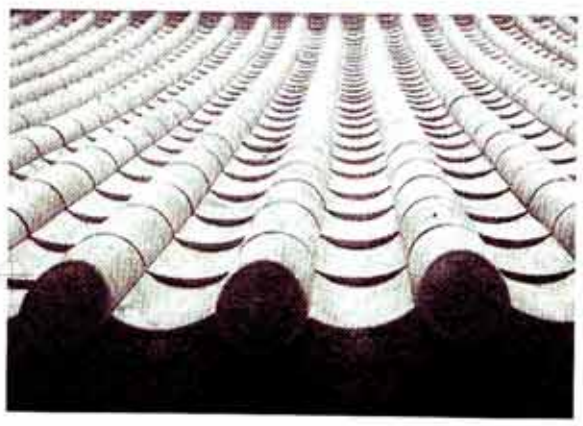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청동 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 성공

2000년 3월 27일 KBS 2TV 저녁 8시 55분
체험 삶의 현장 방영 〈재방송 4월 1일 일요일〉



주요시공내역

1995년	3월	경남 함안 안씨문중 제각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청련암) 대웅전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제각 시공
1997년	5월	정릉 영각사 대웅전 시공
1997년	3월	경남 양산 법수원 시공
1997년	5월	인천 문수암 시공
1998년	8월	서울 상계동 선각사 시공
1998년	11월	안산 화림선원 시공
1998년	11월	설악산 오색석사 시공
1999년	4월	영양 제은 동천사 시공
1999년	6월	신장 선법사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실용신안 9119053 호 모방할 수 없습니다

재래식기와의 무거운하중(평당600Kg ~ 700Kg)과 잦은 동파 및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평당 200Kg)으로 중량을 대폭감소 하였으며 천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리, 주석, 아연을 합금하여 만들었으며 전통방식(점토, 백토, 생석회 다짐)으로 시공합니다.

우영기업

본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청동주물기와사업부 : 02)473-1958 02)474-1550
한식동 기와 사업부 : 02)478-2101